

KIA 전상현 “나만 잘하면 된다”

개막전서 1이닝 1승 ‘출발 산뜻’
다리에 타구 맞은 뒤 불안한 피칭
“밸런스·자신감 찾기 집중할 것”



“나만 잘하면 된다”며 KIA 타이거즈의 전상현이 반전의 불을 이야기했다.

‘디펜딩 챔피언’ KIA는 개막과 함께 불펜의 난조로 고전했다. 여기에 투타의 엇

박자가 계속되면서 승보다 많은 패가 쌓였다. 여기에 내야의 졸부상에 이어 좌완 콕도구가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되는 등 불펜에서도 이탈자가 발생했다. 초반 어려움은 있지만 불펜은 지난해 KIA 우승 전력이었다. 올 시즌에도 KIA를 ‘우승후보’로 꼽히게 한 전력이 불펜이기도 하다.

그나마 위안은 불펜이 지난 15일 경기에서 시즌 첫 무실점 승리를 합작하는 등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불펜의 핵심 전상현은 “지금 다 잘하고 있어서 나만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전상현의 시작은 좋았다.

3월 22일 NC와의 개막전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허리 싸움을 해주면서 승리투수가 됐고, 키움전에서도 탈삼진 하나를 더한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전상현 본인이 만족한 위력적인 공을 뿌리며 좋은 출발을 했었다.

하지만 시즌 첫 원정이었던 한화전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전상현은 3월 28일 한화전에서 2-0으로 앞선 7회 내야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왔다. 이때 전상현은 노시환의 땅볼 타구에 다리를 맞았다. 잠시 경기가 중단된 이후 등판을 이어간 전상현은 체은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투아웃까지의 만렙했지만 김태연에게 솔로포를 맞았고, 연속 볼넷을 내주면서 강판됐다.

이 경기가 2-7 역전패로 끝나면서 전상현은 패전 투수가 됐다.

이후에도 전상현은 불안한 피칭을 이어가면서 KIA 불펜에 비상이 걸렸다.

전상현은 “뜻대로 안 되고, 밸런스도 안 좋고, 결과도 계속 안 좋았다. 초반에 그런 것 때문에 팀이 이런 상황이 됐다”며 “공에 맞아서 밸런스가 안 좋아진 것 같다고도 하는 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밸런스에 집중하고 있는 전상현은 자신감 찾기도 집중하고 있다.

전상현은 “자신감이 필요하다. 내 자신을 믿어야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 KIA 타이거즈 불펜의 핵심 전상현이 밸런스·자신감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다. 나를 믿고 공을 던져야 하는데, 스스로를 못 믿고 자신감 없이 투구하는 느낌이다”며 “지난해에는 투타 밸런스가 좋았다. 올해는 불펜이 초반에 안 좋았다가 지금은 나 빠지고 좋아졌다. 나만 좋아지면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기대했던 초반 흐름은 아니지만 ‘탐’으로 뭉쳐싼 등을 노리고 있다.

전상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안 나와서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는데, 아직 초반이고 선수들이 개인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마음가짐을 다 그렇게 먹고 있다”며 “내가 역할에 충실하면 조금이나마 팀에 보탬이 될 것 같다. 모든 선수가 잘 해야 한다. 혼자 잘해서 팀이 우승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수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로 응원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 응원하면서 팀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전상현은 팬들의 응원에서도 힘을 얻는다.

전상현은 “등판할 때 응원 소리가 크면 아드레날린이 올라오는 것 같다. 소리가 적을 때는 긴장감, 집중력이 약한 것 같다.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들린다(웃음)”며 “내가 잘하면 말하지 않아도 응원 많이 해주실 것이다. 자연스럽게 응원이 나올 것이다. 꾸준함, 안정감 있는 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 잠실로 곰 잡으러 간다

퓨처스 경기서 공·수 소화…답답한 KIA 타선 숨통 트일 듯

‘후랑이 군단’이 베테랑 김선빈(사진)으로 화력을 강화한다.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이 부상 복귀를 위한 실전 점검을 끝냈다. 지난 5일 윈 중앙리 근육 부분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던 김선빈은 지난 16일 한화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을 재개했다.

2타석에 나가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던 김선빈은 17일에는 수비까지 소화했다. 김선빈은 이날 2타석을 뛰면서 우전안타를 기록했고, 2루수로 나서 3이닝 동안 수비도 소화했다.

17일 KT전에 앞서 이범호 감독은 “내일부터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말부터는 경기 내보내도 관전을 것 같다. 두산과의 시리즈에서 좌투수가 두 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김선빈의 복귀에 대해 말했다.

직접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일요일 경기부터는 스타팅 기용도 준비하고 있다.

김선빈이 완벽한 몸상태로 팀에 가세해준다면 답답한 타선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강한 2번 김선빈이다.

박찬호가 16일 KT전에서 연달아 상대의 좋은 수비에 막혀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2번 김선빈으로 테이블세터가 구성되면 KIA의 공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안 아프고 뛰는 게 중요하다. 김선빈이 많이 좋아져서 올라온 것이지만 컨디션 잘 체크에서 상황을 보면서 출전을 시키겠다. 2번으로 기용하고 싶지만 (복귀 후) 많이 나가면 초반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하겠다”며 “찬호가 좋은 타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둘을 1, 2번에 놔두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호걸이·하랑이 카톡에서 만나세요

오늘 신규 이모티콘 32종 출시
하반기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KIA 타이거즈가 카카오톡 신규 이모티콘 32종(사진) 패키지를 선보인다.

18일 신규 출시되는 이모티콘은 호걸이, 호연이, 하랑이 등 KIA 마스코트인 타이거즈 프렌즈 캐릭터 3종을 활용해 제작했으며, 일상 생활의 모습을 귀엽고 활동적으로 표현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앱과 웹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한 번 구매하면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IA는 올 하반기에 타이거즈 프렌즈를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1월 도쿄서 한·일 야구 평가전

프로선수 구성 대표팀 첫 대결

11월에 한일 대표팀 평가전이 열린다. KBO(한국프로야구위원회) 허규연 총재와 한국 대표팀 류지현 감독, NPB(일본야구기구)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총재와 일본 대표팀 이바타 히로카즈 감독이 17일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에서 한일 대표팀 평가전 개최를 발표했다.

경기는 11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되며, 양국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 간에 열리는 첫 평가전이다.

이번 평가전은 포스트시즌 종료 후 야구팬들에게 불거리를 선사하고,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정을 앞두고 대표팀 승선을 노리는 선수들의 실력과 컨디션을 점검할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평가전은 앞서 KBO가 2023년 7월 발표

한 ‘KBO 리그·토키오 레벨업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BO는 해외팀과의 지속적인 교류전 개최를 통해 대표팀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또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월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류지현 감독은 한일 대표팀 평가전을 통해 국제대회 데뷔전을 치른다.

류지현 감독은 평가전을 통해 국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WBC 대표팀 선수 선발에 참고할 방침이다. 또 평가전을 통해 일본 대표팀 전력 분석에도 나선다.

한편 한국대표팀은 내년 3월 도쿄돔에서 열리는 WBC 1라운드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C조에 편성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남자 프로배구 FA 대어 이동 본격화

임성진 KB손해보험
송명근 삼성화재와 계약

남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대어급 선수들의 연세 이동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남자부 FA 최대어로 꼽혔던 아웃사이드 히터 임성진의 행선지는 KB손해보험이었다.

2024-2025시즌 정규리그 후반 뒷심을 발휘하며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KB손보는 소속팀에서 FA로 풀린 ‘내부 FA’ 세터 황택의와 리베로 정민수를 잔류시킨 데 이어 날개 공격수 임성진마저 영입해 단숨에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성진은 실력과 연예인 뺨치는 외모 등 스타성을 겸비한 스타 플레이어이다.

지난 시즌 한국전력 소속으로 득점 7위(484점), 공격 종합 10위(45.99%)에 오르며 활약했다.

그는 수비 3위(세트당 4.13개), 디그 4위(세트당 1.84개)에 오르는 등 수비에서도 고른 활약을 펼쳤다.

KB손보와 플레이오프를 뚫고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던 대한항공도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 우승) 위업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의 우승 멤버였던 FA 아웃사이드 히터 김선호를 영입했다.

대한항공은 2020-2021시즌 신인왕 출신의 김선호를 영입해 주전 날개 공격수 정지석의 뒤를 받칠 든든한 백업 자원을 확보했다.

남자부 FA 대상자 25명 중 대어급 선수들의 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우리카드에서 뛰었던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송명근이다.



임성진

송명근은 삼성화재와 FA 계약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카드에서 날개 공격수로 뛴 송명근은 지난 시즌 31경기기에 나서 200득점에 공격 성공률 55.15%를 기록했다.

송명근이 합류하는 삼성화재에선 FA로 풀린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김정호가 잔류 대신 다른 팀으로 이적을 선택했다.

김정호는 임성진이 떠난 한국전력을 새로운 동지로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에서 외국인 선수의 부상 공백 속에 주전 아포짓 스파이커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김동영도 이적을 눈앞에 뒀다.

김동영은 한국전력과 결별하고 A구단과 FA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FA 대어들의 연세 이동과 맞물려 대형 트레이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송명근

구단과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이 빅딜을 추진 중이다.

현대캐피탈이 트레블 달성에 힘을 보태던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전광인을 내주고 지난 시즌 후반부에 OK저축은행의 주전 아포짓 스파이커로 활약한 신호진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양 구단이 사실상 합의했다는 설이 나온다.

현대캐피탈은 앞서 전광인과 FA 계약을 일찌감치 체결한 뒤 OK저축은행과 트레이드를 논의해왔다.

이 빅딜이 성사되면 현대캐피탈은 신호진 영입으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허수봉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볼 배구 전도사’ 신영철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OK저축은행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전광인을 보강함으로써 전력에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